“AI 기반 공교육 혁신… 서울 학생들, 미래 인재로 성장 지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전국 최초 AI교육센터 설립 추진
서울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 협업
AIDT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며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교육센터 신설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공교육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배움의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며 “서울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AI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AI 교육 방향 설정부터 콘텐츠 개발, 현장 컨설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희대 , 서울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 중이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와 AI교육·연구·창업센터 구축을, 서울과기대와는 로봇융합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AI 선도교사 800여 명을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존의 단편적 연수 방식을 넘어선 AI 시대에 걸맞은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준비 중이다.

AIDT(인공지능 디지털 튜터)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선도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AIDT 사용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은 학기 단위가 아닌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정하는 모델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기 시작과 도입 시점 간의 시간차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AIDT 사용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 뒤 2학기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종료 후, AIDT를 실제 활용한 교사 및 학생들과의 심층 토론회 및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하기 AIDT 도입을 신청한 학교는 29%였으나 실제로 활용한 비율은 24% 수준”이라며 “기계적 보급보다 현장 효과와 교육적 타당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IDT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자료’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선 점도 주목된다. 본회의 통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본회의 통과로 교육자료로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면, 예산 지원과 교사 연수, 기기 보급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선택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IDT 완전 폐기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전면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학교 자율에 따라 부분 활용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IDT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교육감은 AI 교육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교육의 세 가지 핵심 과제는 ▲AI 윤리 문제 대응 ▲AI 도구 활용 역량 강화 ▲AI 기술 개발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라며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AI교육센터를 통해 AI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춘 커리큘럼과 교육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AI 및 수학·과학 융합교육 강화, 농촌 유학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 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

25일까지 요일제… 이후 자유 신청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제작·배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된다.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개에서 48만개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스티커를 통해 가맹점을 손쉽게 식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봉성포천 정비사업 728억 투입

전 구간 제방정비 완료 계획

경기도는 김포시 대곶면과 양촌읍 일원을 연결하는 봉성포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에 총 728억 원을 투입해 전 구간 제방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성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6년 5월 설계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20년 봉성포천 하류(양촌읍 양곡리~하성면 봉성리 일원) 4.84㎞ 정비를 완료했고, 이번 사업에서 상류 3.08㎞를 정비해 봉성포천 전 구간에 걸친 제방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봉성포천 상류는 1시간당 약 40㎜ 정도의 강우량에도 침수가 발생되는 홍수에 취약한 지역으로써, 지난 2022년의 경우 교량은 물론 제방도로까지 범람하여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도는 하천폭을 기존 6m에서 정비 후 65m로 대폭 확장하고 제방은 약 3m 높이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교량 10개소도 재가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설치되는 하천 제방도로는 양촌역부터 한강 자전거 도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향후 인근 지역 개발에 따라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시, 투자진흥재단 임원 모집

이사장·비상임이사 등 선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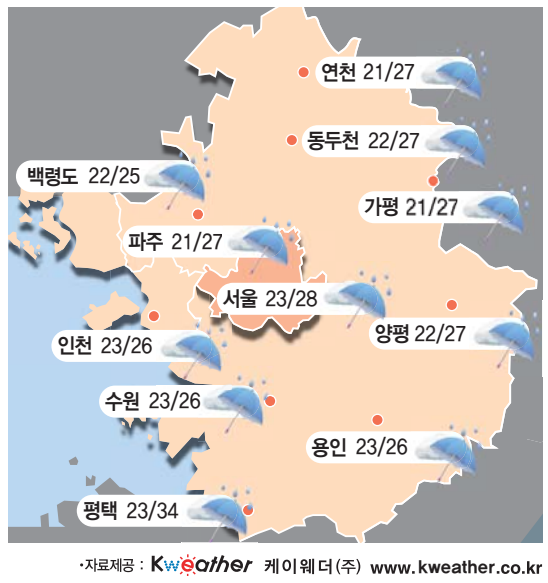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23 | 해짐 / 19:53

7월 16일 (水)
음력 : 6월 22일

수도권 날씨
23~2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젠슨 황 “미국 정부, 엔비디아 H20칩 중국 수출 허용” /사진 뉴시스

▲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어린이 6명’ 숨져…물 받으려 줄 서다 참변

▲트럼프, 유럽연합에 30% 관세 경고…‘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하나

▲러시아 외무장관, 시진핑 만나 ‘푸틴 중국 방문’ 논의

▲6월 중국 신축주택 가격 3.7%↓…“지원책에도 계속 하락”

▲이란, ‘우라늄 농축’ 레드라인 재확인…“조건 걸면 협상 없다”